

19세기초 공상적사회주의사상에 대한 분석

리 정 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의 과학성과 그 승리의 필연성을 론증하자면 지난 시기 제기되었던 사회주의사상에 대하여 옳바로 리해하는것도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사회주의가 발생한 력사는 오래다. 력사적으로 보면 사회주의에 관한 사상은 봉건사회말기에서부터 시작되어 오랜 기간 리론적으로 체계화되어왔다. 사회주의에 대한 사상은 16세기초 영국의 토마스 모어에 의하여 처음으로 제기되었으며 19세기초 서유럽의 오우인, 썽시몽, 푸리에에 의하여 리론적체모를 갖추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상적사회주의자들은 자본주의제도를 비판하는 한편 이상사회와 그 실현방도를 모색하였습니다.》

19세기초 프랑스의 공상적사회주의자들인 오우인, 푸리에, 썽시몽은 이전시기의 이상사회에 대한 구상을 발전시켜 사회주의에 관한 일련의 리론을 내놓았다.

19세기초 공상적사회주의자들은 우선 자본주의사회를 불합리한 사회, 비리성적인 사회로 비판하였다.

19세기초 공상적사회주의자들은 자본주의를 인간본성에 맞지 않는 비인간적인 사회로 규정하였다. 자본주의의 인간적인 성격에 대하여 그들은 이 사회에서의 근로대중의 빈궁과 살인적인 로동을 놓고 설명하였다.

19세기초 공상적사회주의자들은 또한 착취와 압박이 없고 사람들이 유족하게 사는 사회, 이상사회에 대한 견해를 제기하였다.

그들은 이상사회를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소유가 폐절되고 생산과 분배, 교환과

소비를 비롯한 모든 경제생활분야가 공동의 요구에 맞게 실현되는 사회로 그렸다. 오우인의 설계에 의하면 《꿈무나》사회에서는 사회적소유에 기초하여 생산이 공동으로 진행되고 부의 생산량은 공동체의 수요를 훨씬 넘는다. 이것은 사람들이 생존요구에 맞는 분배를 받을수 있는 가능성으로 된다. 기술과 과학이 널리 적용되어 로동은 즐겁고 유익한것으로 되며 육체로동과 정신로동이 조화롭게 결합된다. 푸리에가 설정한 《팔랑그》사회에서는 자기의 취미와 기호에 맞는 일을 자유롭게 할수 있는것으로 하여 로동은 유쾌한것으로 되며 도시와 농촌의 대립은 없어지게 된다.

19세기초 공상적사회주의자들은 이상사회를 인간본성에 맞게 구성되는 사회로 보고 《새로운, 보다 완전한 사회기구의 체계》를 착상해냈다. 오우인은 《꿈무나》사회의 성원들을 재산이 아니라 나이에 따라 9개 층으로 나누고 그에 따라 공동생활이 이루어지는 사회의 기구체계를 구상하였다. 푸리에에는 《팔랑그》사회에서의 분배기준을 로동, 자본, 재능에 따라 5:4:3의 비율로 규정하여 생산자존중사회를 설계하였다.

19세기초 공상적사회주의자들은 또한 이상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방도도 제기하였다.

그들은 계몽을 이상사회를 실현할수 있는 유일하게 결정적이며 리성적인 방도로 제기하였다. 오우인은 교육을 통하여 세계는 혁명없이, 전쟁도 류혈도 없이 행복을 얻을수 있다고 하였으며 썽시몽은 설득시키는 방법을 유일한것으로, 푸리에에는 선전과 모범에 의하여 사람들에게 이상사회의 설계안을 납득시키기만 하면 조화적사회는 곧 현실로 옮겨질것이라고 믿었다.

19세기초 공상적사회주의자들은 자기들

의 계몽의 대상을 지배층과 유산자만을 넘두에 두었다.

그들에 의하면 사회적불행과 고통을 빚어낸 화근은 결국 지배층과 유산자들의 무지에 있다. 정치적권력과 물질적재부를 틀어쥔 인간들의 비리성적인 사고로 하여 사람들사이에 불합리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과잉으로부터 빈궁이 산생된다. 사회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직하며 창조된 재부를 사회의 행복을 위한 밑천으로 되게 하는것은 바로 지배층과 유산자들을 무지로부터 일깨움으로써만 가능하다는것이다.

19세기초 서유럽의 공상적사회주의자들이 제기한 사상은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과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일련의 중요한 문제들을 제기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사회주의사상발전에 일정한 영향을 주었다.

19세기초 공상적사회주의사상은 무엇보다먼저 인간의 리성을 절대시하고 그에 의하여 사회발전을 설명하는 합리주의를 세계관적기초로 하고있다.

합리주의는 인간의 리성을 내세우면서 논리적사유만을 절대화하는 리론으로서 당시 널리 류포되고있던 철학조류의 한 형태이다. 합리주의는 존재일반의 원리를 리성에 두고 존재리유를 가지지 않는것은 인식할수 없다고 보며 경험론에 대립하여 모든 확실한 지식은 생득적이고 명확히 증명된 원리에서 유래하며 그의 필연적귀결이라고 주장한다. 합리주의는 근대에 들어와 철학자들인 데카르트, 스피노자 등에 의하여 리론적으로 체계화되였다. 합리주의는 온갖 형태의 비합리주의에 대립하여 활동의 기준을 오직 리성의 원리에서만 찾았다. 합리주의의 이러한 원리들은 19세기초 공상적사회주의사상에 반영되였다.

19세기초 공상적사회주의자들은 자본주의사회를 비판하고 리상사회의 면모와 그 실현방도를 제기하는데서 인간의 리성을 절대화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그들은 자본주의사회에서 온갖 사회악의 원인은 리성을 잘못 가진 사람들에 의하여 생기기때문에 리성에 맞는 리상사회를 주관적으로 세워놓고 그에 맞게 사람들의 리성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사회주의가 실현된다는 견해를 제기하였다. 이것은 그들이 사회의 변화발전이 인간의 리성에 의하여 좌우된다고 보는 합리주의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는것을 보여준다.

합리주의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객관적인 현실을 경시하고 인간의 리성만을 절대적으로 숭상하는 리론적인 경향이다.

합리주의는 사람들로 하여금 현실을 도피하도록 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있다.

사람의 의식과 현실세계는 밀접히 련관되어있으며 현실세계의 개조발전법칙을 더 잘 인식하면 할수록 사람은 과학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자기의 요구를 더 잘 실현해나갈수 있다. 이것을 보지 못하고 인간의 《리성》 그자체만을 절대시한다면 사회발전에 대한 견해에서 주관주의적오류를 범할수 있으며 대중에게 접수될수도 없다.

합리주의적인 관점과 립장에 섰던 19세기초 공상적사회주의자들은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에서 철저하지 못하고 사회주의사상을 전개하는데서 주관주의를 면할수 없었다.

19세기초 공상적사회주의사상이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에서 철저하지 못하고 비현실적인 성격을 띠게 된것은 바로 그 대표자들의 사회계급적립장과도 중요하게 관련되어있다. 그들은 《신》중심의 《사회신성화》에 반기를 들고 인간의 《리성의 왕국》을 세울것을 주장한 부르쥬아지들의 주장에 공감하는 립장에 서있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본주의가 자유와 평등이 완전히 실현되었다고 비호하는 부르쥬아지들의 견해를 반대하면서도 《리성의 왕국》인 자본주의제도 그자체는 부정하지 못하고 그 테

두리안에서 이상사회에 대한 자기들의 견해를 내놓았다. 이것은 그들의 계급적제한성이었다.

맑스주의창시자들은 19세기초 공상적사회주의자들의 견해가 《미숙한 계급의 미숙한 이론》으로서 노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근본리익을 밝히지 못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과학적방도를 내놓지 못한것으로 하여 현실을 떠나 공상으로 남아 있게 되었다고 비판하였다.

맑스주의는 현실을 변화시키지 않고 순수 리성의 힘으로 사회주의를 세울수 없다고 보았다. 맑스주의는 자본주의사회의 물질경제적기초자체를 혁명적으로 뒤집어엎는 방법으로 사회주의가 세워진다고 주장하였다.

19세기초 공상적사회주의사상은 다음으로 인간의 본성과 사회적환경을 결부시키고 인간의 물질경제적요구를 내세웠다.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이상사회를 그리는데서 19세기초 공상적사회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인간본성》의 원리로부터 출발하였다. 푸리에의 견해에 의하면 《열정》은 신이 준것이기때문에 선하고 조화적이다, 인간이 악하고 그들사이에 조화가 이루어지지 못한것은 바로 사회조직이 나쁜것과 관련되어있다는것이다. 푸리에와는 달리 오우인은 인간은 본성에 있어서 악하지도 선하지도 않다고 보았다. 그는 인간이 선하게 혹은 악하게 되는것은 사회적환경이 어떠한가에 달려있다고 하였다. 여기로부터 자본주의사회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의 결함은 그 사회제도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사회적환경을 사람의 본성과 결부시키려고 한것은 긍정적인 시도라고 볼수 있다. 사회제도를 분석하는데서 초자연적인 《신》이나 특출한 《군주》에 의거하였던 지난 시기와는 달리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을 사람의 본성과 결부시킨것도 현실적이다.

그러나 그들이 분석한 사회적환경은 주

로 노동과 물질생활로 특징지어지는 경제생활측면을 넘두에 둔것이었다.

경제생활은 사회생활의 기초를 이루는 중요한 분야이다. 사회생활은 경제와 함께 정치와 문화분야를 포함하며 특히 정치제도가 사회생활에 주는 영향은 매우 크다. 사람들이 경제생활에서 겪는 고통은 그 사회의 불합리한 정치제도와 밀접히 련관되어있다. 이 점에 큰 주의를 돌리지 못하면 부정적인 사회현상에 대한 비판이 철저할수 없고 긍정적인 사회현상을 정확히 그려낼수 없다.

19세기초 공상적사회주의자들이 사회적환경에서 경제생활면을 강조한것은 오랜력사적근원을 가지고있다.

지난 시기 사람들은 노동을 고역으로 생각하였고 가난한탓에 불우한 운명을 겪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언제나 가난이란 무엇인가, 악과 불평등은 왜 생겨나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하였고 가난에서 해방된 세상을 그려보았다.

이 과정에 사적소유가 모든 사회악과 불평등을 낳는다는 새로운 견해가 출현하게 되었다. 말하자면 사회적부가 일부 개인들의 수중에 장악되어 과반수의 사람들이 빈궁선에 놓이게 되고 사회는 부자와 빈자로, 특권층과 무권리한 층으로 갈라지게 되었다는것이다. 이로부터 사적소유를 없애고 사회적소유에 기초한 새로운 사회, 이상사회의 도래를 기대하는 사상조류가 생겨났는데 이 조류의 초기사상가들은 저들의 견해를 사회주의라고 표현하였다. 사회주의라는 말 자체는 《생산수단에 대한 공동소유》라는 경제적의미를 담고있는데 그것은 사회주의가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와 그에 기초한 온갖 착취사회를 부정하는 개념으로 출현하였기때문이다. 이것은 후에 맑스주의가 사회주의리론을 연구하는데서 물질경제적인 측면을 위주로 내세우는데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

물론 사람들은 가난과 빈궁에서 벗어나 유족하게 살것을 바라며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차이가 경제령역에서 중요하게 나타나게 되는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경제적인 면이든 정치적인 면이든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인간의 본성적인 요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보다 기초에 놓인다.

지난날 사람들은 저들의 요구와 지향에서 단순히 경제적리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살려는 측면이 보다 강렬하다는것을 제대로 자각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존엄있게 살려는 강렬한 지향과 념원으로 하여 인간은 장구한 역사적기간 자주성을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왔으며 계급사회의 교체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자주성을 억압하는 형태에서의 변화만을 가져온 계급사회의 교체를 통하여 인민대중은 사회정치적자주성을 실현하지 못하였다.

사람들은 모든 착취사회를 증오하고 새로운 이상사회를 열렬히 동경하여왔다.

19세기초 공상적사회주의자들이 물질경제생활을 중시하면서도 그 기초에 놓여있는 인간의 본성적요구에 주의를 돌리지 못

한것은 커다란 실책이었다. 그들은 인간의 본성적요구에 대한 옳은 인식이 부족한데로부터 광범한 사람들의 비참한 생활처지를 동정하였으나 그들이 구원되는 이상사회(사회주의사회)를 매우 추상적으로 그려내게 되었다.

력사상 처음으로 인간의 본성을 중심에 놓고 사회주의사회의 면모와 그 실현방도를 밝힌 사회주의사상은 주체사상이다. 주체사상은 사회주의사회는 존엄있게 살려는 인간의 자주적본성과 세계의 힘있는 존재로 살려는 창조적본성을 전면적으로 구현한 사회이며 인간자신의 주동적인 역할과 투쟁에 의하여 사회주의가 승리한다는것을 천명하였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에 대한 가장 과학적인 견해를 확립한데 기초하여 인민대중에게 참다운 자주적권리와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는 진정한 인민의 사회주의사회를 완성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그 이론적지침의 과학성, 진리성으로 하여 반드시 승리할것이다.